



연중 제26주일 · 이민의 날

입당송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예제 18,25-28

화답송 시편 25(24),4-5.6-7.8-9(◎)6ㄴ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된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필리 2,1-11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마태 21,28-32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순교 사적지 전주 옥 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 20(한국 전통문화 전당 후문)

관할

전주교구 / 전동 성당 063-284-3222

조선 시대 전주는 전라도 중심지여서 신자들이 각지에서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혀 심문,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였다.

신유박해(1801년) 때는 동정 부부인 유중철과 그의 동생 유문석이 교살되었고, 이순이 루갈다는 옥중 편지를 작성하였다. 정해박해(1827년) 때는 240여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감금되어 문초를 받았다. 순교 역사상 가장 어린 이봉금 아나스타시아가 교수형으로 순교하였는데 이때 이봉금의 나이는 만으로 12세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박해 시기에 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기도처였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증언하는 곳이었다. 이일언 읍, 신태보 베드로, 이태권 베드로, 김대권 베드로, 정태봉 바오로는 정해박해(1827년) 때 잡혀와 만 12년 동안 옥중에서 긴긴 세월을 보내고 숲정사에서 순교하였다. 그들은 옥중에서도 밤마다 등불을 켜 놓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고 한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추교윤 시몬 신부
행주 주임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이상한 신앙'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신앙의 가르침에 맞지 않게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 신앙의 진리들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이상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 삶을 매사에 신앙의 가르침에 맞추어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진정한 신앙에 걸맞지 않은 '이상한 신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면서 때로는 신앙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까지도 스스럼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상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서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당시 지도자들의 허위와 위선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만큼 거룩하고 열심한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뽐내면서도 믿음 따로, 삶 따로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훈계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야고 1,22).' 문제는 말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따르지 않는 '이상한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즈음의 현실을 보면서 씩씩한 분노가 이는 것은 믿음과 생활이 따로 노는 '이상한 신앙'으로 겪어야 하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운기 있는 말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과 거짓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듣기만 하고, 하는 척하고 결국은 하지 않는 사람인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행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믿지만, 실제 삶에서 말과 행동은 신앙의 가르침에 걸맞지 않은 '이상한 신앙'인가? 🍎

〈어린아이 신앙〉 -어린 신앙을 가진 모든분에게-

정여진 요안나 / 광릉 성당

올해로 19살. 나는 10년째 투병 중이다.

9살이 되던 해의 무더운 여름. 나는 아직도 그때의 온도, 분위기까지 잊을 수 없다. 그날 하루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독한 여름 감기에 걸려 시골구석에 위치한 조그마한 동네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감정이 조금 떨어진 듯한 그렇지만 굉장히 무서웠던 한 마디였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나와 엄마는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이 흔들렸다. 듣자마자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우리 가족은 혼란 그 자체였다. 모든 병이 그렇듯 예고 없이 닥쳐온 상황에 우리는 그대로 직격타를 맞았다. 불안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는 내 몸이 잘못된 줄 알았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슬프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다만 숨 막히는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나를 휘감았다. 그때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의 투병 생활은 시작되었다.

혈소판 감소증, 내 병명이었다. 한 번 출혈이 발생하면 몸속에 있는 혈소판의 수가 부족해 지혈이 늦게 되는 질병이었다. 나는 평소에 코피가 자주 나는 편이기는 했다. 그게 신호일 줄 아무도 몰랐다.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투병을 시작했다. 병원까지 한 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오가며

병원 생활을 했다. 병원에 다녔지만 내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한 달에 한 번 다니던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한 시간 넘게 매주 길거리에 시간을 버렸고, 나는 공복에 매주 두 병씩 피를 뽑아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쳐갔다. 내 병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새벽 2시에 자다가 코피가 터지면 해가 뜨고 정신이 몽롱해질 때까지, 두루마리 휴지를 한 통 다 써버릴 만큼 피를 흘렸다. 그때마다 막연히 억울하고 누군가를 원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원망했던 대상은 ‘주님’이었던 것 같다. 솔직히 원망도 많이 하고 억울함도 많이 퍼부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종교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성립되지 않았다. 그냥 어렸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첫영성체를 받고 교리를 받았다. 주님의 존재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마냥 주말마다 놀러 가는 기분으로 성당을 다녔다. 그랬던 나에게 사춘기의 투병 생활은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딱 좋았다.

“아무리 기도해도 날 낫게 안 해주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긴 하는 걸까?”

내 가치관이 흔들리던 시기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랬다. 정말 매일 기





도했다. 너무 아프다고 이제 그만! 지친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밤마다 마음속으로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렀다. 하지만 이 외침은 기도가 아닌 어리광이자 투정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혈소판 수치가 유지되었던 날이었다. 건강 수준으로 수치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상태를 유지한 것뿐이었지만 엄마는 나에게 성모병원 지하에 위치한 조그마한 성당에 들러 기도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다. 썩 내키지는 않았다. 그런 애매한 감정으로 성전에 들어서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은 우리는 조용히 묵상을 시작했다. 성전 가운데 커다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붉은빛의 할로젠 조명에만 의지한 채 우리 둘은 묵상을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오늘도 열심히 운전해준 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처럼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세요.”

처음이였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투정과 어리광이 아닌 감사로 기도를 드린 것이 처음이었다. 순간, 이게 기도이구나 싶었다. 정말 간단한 것인데 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뭔가를 바라고 원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주어질 것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표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지금껏 내가 해온 투정들은 분노 섞인 가시들이었지만, 내가 남을 생각할 때 나오는 기도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것 같았다. 더불어 그

게 돌아와 나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적어도 한 개 이상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 정말 사소한 것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도했다.

감사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써왔다. 10년 치의 기록이 모이니 일기장 권수도 점점 늘어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가치관도 점점 다져지기 시작했다. 이제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나의 타인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나만의 신앙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분명 나와 같은 청소년, 더 나아가 일반 어른 신자들도 많을 것 같다. 인생에 큰 변환점이 있어 성당을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처럼 기도가 뭔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성당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천주교인이 되었든 자신만의 이야기, 이유도 존재할 것이다. 내가 써온 10년간의 일기를 읽어보면서 나 역시 성장한 것을 느낀다. 신앙인으로서 마냥 어리고 투정만 부리던 내가 남을 위해 하는 기도의 매력을 깨달았다니.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주님과 마주한 누군가도 찾기를 바란다. 자신에게 와닿는 신앙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리 어려운 방법도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
수동 주임

성경으로 보는 정치 공동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외울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청합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가 현실 세계 안에서도 자리 잡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정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현실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느님의 통치에 관한 개념이 있었고, 이를 현실 정치 안에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시어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민족답게 이웃 민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왕권을 이해합니다. 먼저 판관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예언자이자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했고(1사무 8,5; 10,18-19 참조),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으면서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1사무 10,1-2 참조).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란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신명 17,15; 사무 9,16 참조) 축성하신 사람(1사무 16,12-13 참조)입니다. 왕직의 정체성부터가 다릅니다. 왕은 하느님의 통치와 구원계획을 드러내는 사람이기에(시편 72 참조), 약자들의 수호자이며 백성을 위한 정의의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왕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예언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1열왕 21장; 이사 10,1-14; 아모 2,6-8; 8,4-8; 미카 3,1-4 참조). 비록,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왕의 이상향 자체는 남아있었고 이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이천 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 하에서 독립을 가져다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의미를 오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거부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올바른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확립시키기 위한 참된 메시아로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영광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오는 것이기에, 그분께서는 “섬기러 왔고 목숨을 바치리”(마르 10,45; 마태 20,24; 루카 22,24-27 참조)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현세적 권력을 갈망하며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를 따지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9,35)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 오른편에 앉혀달라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마태 20,20-23 참조). 이런 말씀들은 결국 그분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즉, 현실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을 우선해야 함을 당신 삶으로써 증거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메시지는 정치 권력은 하느님에게서 오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구성하는 한 부분임을 상기시키면서, 정치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성찰에 무한한 영감을 준다. 이러한 질서는 인간의 양심으로 인식되며, 평화의 도구인 진리와 정의, 자유, 연대를 통하여 사회 생활 안에서 완성된다.” (교황청 정의평화협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373항) ☺

피델리스 친구들의 집콕! 클래식(2)

함께 듣고 싶은 '미완성교향곡'의 아름다운 선율



제가 피델리스와 함께 해온 4년의 정기연주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2017년도에 연주했던 Franz Schubert의 Symphony No.8 "Unfinished"입니다. 이 작품은 가곡의 왕으로 알려진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 하나로, 브람스가 "양식적으로는 미완성이지만 음악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만으로도 가장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곡입니다. 슈베르트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이 "미완성교향곡"이라니 정말 어이러니하지 않은가요? 슈베르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고 감동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교향곡에서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아름다운 선율에 충분히 감동할 수 있기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현진 유스티나_마두동 성당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와 즐거움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외출이 힘들어지고 저 또한 학교에서 보고 싶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슬프기도 합니다. 어느 날 모처럼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음악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드신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곡이라 생각되었는데 바로 《이탈리아 협주곡 F 장조 BWV 971》입니다. 세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곡에서 1악장은 발랄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2악장은 차



분해지고 위로를 주는, 3악장은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받았던 부분은 3악장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는 3악장이 삽입되었는데 이 부분은 한 여자아이가 콩쿠르에서 연주하며 두려움을 이겨냈던 곡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곡을 여러분들께 추천하며, 많은 분들께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연 스텔라_야당 맑은연못 성당

새롭게 만난 '운명' 교향곡



5학년때 비올라 라는 현악기로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재밌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종류의 곡을 해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연주하면서 재미있었던 곡은 베토벤 교향곡 제 5번 '운명'입니다. 이 곡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교향곡인데, 저는 1악장 도입부에 있는 그 유명한 멜로디만 알 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 곡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합주시간이 되면 연습하기 싫기도 했지만 열심히 연습하면서 실력이 나아졌고, 연주회가 끝났을 때는 만족감에 기분이 좋고 흥가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곡을 준비하는 동안 재미도 있었고 멜로디도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로 가장 기억에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미 세실리아_행신2동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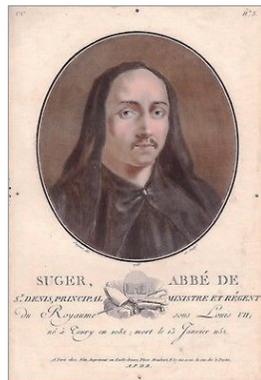
유비(analogia)와 평행을 찾아서 고딕건축과 스콜라철학

강한수 가톨릭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이제 먼저 수북한 '고딕'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로마네스크'가 '로마다운'이란 뜻이었다면, '고딕'은 게르만족의 하나인 고트족을 가리키는 '고트인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딕이 고트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고딕'과 '고트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딕'이라는 이름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인들이 이 양식을 두고 게르만족의 세련되지 못하고 야만적인 것이라고 경멸하면서 붙인 것인데, 계속 사용하면서 후대에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고딕양식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상당 기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빼놓을 수 없는 미술사학자인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 1892-1968)는 그의 역저 『고딕건축과 스콜라철학』(김율 역, 한길사, 2016)에서 고딕건축과 당대의 주류 사상이었던 스콜라철학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순전한 사실 영역에서 고딕건축과 스콜라철학은 결코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을 뚜렷한 동시발생을 보여준다. 그 누구도 이 동시발생을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중세철학사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자료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은, 그들이 여타의 고려 사항들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중세미술사가가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과 똑같았던 것이다."(위의 책, 72쪽). 그는 로마네스크 건축이 노르망디와 잉글랜드의 엄격한 구조주의(→성당이야기 26회)에서부터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의 강렬한 시원적 고전주의(→성당이야기 32회)에 이르기까지 다양성과 불일치성을

드러낸 것과, 신학과 철학이 완고한 신앙주의(베드로 다미아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성당이야기 21회)와 과격한 이성주의(투르의 베레가리우스→성당이야기 23회), 그리고 시원적 인문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흐름의 복잡성을 갖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성과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란프랑쿠스와 성 안셀모의 선구적인 시도가 있었고(→성당이야기 30회), 아벨라르두스(Petrus Abaelardus +1142) 등에 의해서 그 원리에 대한 탐구와 진술이 처음으로 시도되면서 스콜라철학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의 생드니(Saint-Denis)에서 슈제(Suger)가 고딕건축을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생드니의 슈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역시 같은 장소에서 스콜라철학은 전성기에 접어들는데, 이때 샤르트르 등지에서 고딕건축 역시 전성기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성왕 루이 9세의 통치 기간(1226~70)에 속하는데, 알렉산더 할렌시스(1183~1245), 알베르투스 마뉴스(1193~1280), 성 보나벤투라(1221~1274),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등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초기 스콜라철학과 대비되는 전성기 스콜라철학 고유의 특징은 초기 고딕건축과 대비되는 전성기 고딕건축의 고유한 특징과 뚜렷한 유비(類比, analogia)적 관계"(파노프스키, 같은 책, 75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9월 29(화) 10시 교구청회의

교구장 동정



교구 소식

가톨릭카우트 대원·지도자 모집

대상 초·중·고(대원), 성인(지도자)

문의 최병일 비오 010-9031-4542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서명운동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특별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7대 종단과 수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자는 목표로 국내외 1억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전쟁 당사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 담대한 여정에 교우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endthekoreanwar.net 에서 온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교구 내 봉안시설 일시 폐쇄 안내

신곡2동 성당: 하늘의 문

참회와 속죄의 성당: 평화의 문

이번 추석 성묘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 봉안당을 폐쇄하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른 날짜를 이용하여 주시고 가족 친지들에게도 안내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쇄기간 9/26(토)~10/4(주일)

■ 하느님의 집 후원 현황(8월말 기준) - 신설 성전 부지 구입 기금

전월잔액		5,346,096,717원			
8월 후원	사제와 개인	본당 입금	기타(미사예물 외)	교구 부서	합계
	9,330,000원	87,218,387원	33,918,105원	5,100,000원	135,566,492원
월말누적잔액		5,481,663,209원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앙생활 지침서 ③

2부. 신령성체

실제 영성체가 아니라, 성체를 모시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마음으로 영성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성체가 그날 하루 동안의 모든 행위를 신앙과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주기에 신자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령성체를 ‘성찬례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으로 품으려는 열망’이라 하셨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체성사에 관한 교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신령성체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행위를 애덕으로 가능케 하고 천상양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생생히 살아 있는 신앙을 가진 자이며 이들은 성체로부터 풍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령성체는 성체, 제대, 감실, 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수 세기에 걸쳐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령성체 기도를 바쳤습니다. 두 가지 양식 중 이번 주는 4단계 신령성체 방법을 씁니다.

4단계 신령성체

1단계. 믿음

성찬례 때 실제로 계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기도문이나 직접 만든 기도문을 이용해 기도를 바칩니다.

기도문 1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니,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문 2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성체 안에 계시음을 믿나이다.
세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없사오니
영적으로라도 제 안에 오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려 하오니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2단계. 사랑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3단계. 희망

지금 당장 성찬례에서 주님을 받아 모실 수 없으므로, 그분을 모시려는 열망을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4단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찬례 때 그분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오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신령성체 <알퐁소 리구오리 성인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씁니다.

지침서 전문▶





미사 · 피정 ▶▶

행주 성당 성모 신심 미사(전대사)

일시: 10/3(토) 11시(미사, 묵주기도)
매월 첫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 (8박9일)

기간: 10/16(금)~10/24(토)
문의: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2박 3일: 10/16~18
예수마음기도 4박 5일: 10/2~6
예수마음기도 8박 9일: 10/2~10
이나시오 영신수련 2박3일: 10/2-4, 10/16-18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10/23-25(기본)
21세기 흔들리는 모성(부모들을 위한 특별 강좌): 10/19(월) 10시~12시
분노 다루기 연수: 10/30(금)~11/1(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신청: 010-9099-2337, www.jesumaum.org

제주명현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10/31~11/2, 11/11~13, 11/16~19,
11/22~25, 12/5~7, 12/11~13
접수: 02-773-1463, 064-756-6009



교육 · 모집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채용

채용분야: 도급계약 관리/총무업무 등
모집일: 상시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로마서 강의 (비대면 실시간 화상 강의)

일시: 10/7(수) 저녁 8시 부터 시작
이메일 신청: chusimon60@gmail.com
성명,세례명,본당,주소,전화번호 필히입력
자세한 내용은 신청 메일로 발송함

2021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가톨릭지도자추천(간호,심리,사회복지,경찰
행정 등)/입학상담: 053-850-2580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인
(경기도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가능,
송영서비스 가능)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pjdoran> /문의: 031-942-8000

커피바리스타교육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문의: 010-9040-8306, 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전화로 하는 심리상담

내용: 코로나 블루 영향으로 불안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 공감받고 싶은 분들 누구나 문의 및 접수: 02-775-4831 평화심리상담소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기숙형)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학년편성: 중등 3년, 고등 3년
교육과정: 기초, 인문예체능, 특성화, 진로체험, 특별교육, 수시입학 /기숙사 운영(통학 및 기숙 중 선택)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살레시오미래교육원
문의: 02-833-0930, dybsbosco@daum.net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10/12(월)부터 10주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소오르간연구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분야: 사무직(1명), 조리직(1명)
제출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마감: 10/30(금) 14시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

서강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이탈리아어,스페인어 배우기

내용: 2020년 가을2학기 수업모집 (11-12월 진행)
개강: 11월 2,3일 (8주 과정, 30시간)
문의: 02-705-8081 <http://flec.sogang.ac.kr>
이탈리아어: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왕초보,초,중,고급, 독해, 회화반
스페인어: 입문, 초,중,고급*, 델레, 여행, 성지순례/ 단계별 맞춤형 교육,취미, 자격증, 유학준비 대상
장소: 서강대 외국어교육원 (경의선 '서강대역' 앞) 수도자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2021 노비투스 음악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대상: 사회복지(양육)시설 거주 여학생
인원: 2021학년 중학교 1학년 12명
모집기간: 10/16~10/26
학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210번길 325
문의: 교)031-584-1130 행)070-8953-1009 교감)070-4129-7072
소속: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9/23(수) 09시~28(월) 18시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성직자추천전형 등 8개 전형
담당: 권혁민 루카 입학사정관 051-510-0705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안내

명사초청특강: 10/30(금) 13:30 (문자접수)
성시간: 10/31(토) 13:30
문화강좌: 숲해설, 초공예, 서예반 수시모집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안내 · 기타 ▶▶

의정부성모병원 공단검진 안내

대상: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의정부 이외 거주자도 가능)
문의 및 예약: 1661-7500 (병원 콜센터) 031-820-3330 (건강증진센터 콜센터)
연말(11월, 12월)은 혼잡합니다. 미리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중독 중점치료(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09시~17시) /야간진료(화 18:00~20:30)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교메스영성상담소

영성! 그 길을 만나면 삶과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 전화, 온라인상담 모두 가능(주1회, 유료)
문의: 노경덕 신부 010-9916-5798

미국가톨릭사립학교 1월 입학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기숙사학교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문의: 02-2258-8983
www.oakinternational.co.kr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회	해위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성소국장 010-8715-2846
	골롬반외방선교회	10/11(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43 영성의 향기

이데올로기 신앙

김동규 바오로 신부
대신학교 영성지도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와 문화, 정치와 종교에 대해 종종 날 선 비난을 퍼붓습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은 종종 개인이 몸담고 있는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며, 비난이나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겪곤 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역동적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망과 좌절에 빠져 하느님의 자비는 보지 못하고 타인과 공동체, 교회와 사회,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죄와 결점만을 바라보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는 악의 패배와 선과 정의의 실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오는 좌절과 불안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상한 시간과 범위 안에서 좋게 변화된 결과나 만족스런 해결책을 전망하기 힘들 때, 우리는 세상의 죄와 부정(不正)을 '하느님의 부재(不在)'로 여기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와 악이 하느님의 자비보다 크다고 너무 쉽게 생각함으로써 주님을 밀어내는 데 익숙해 집니다. 합리적 논리와 숭고한 정의로 빛어낸 '현실 비판'이라는 웅장한 무용담은 '자비와 사랑의 신앙' 위에 서게 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통쾌한 카타르시스(Katharsis)는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고, 비판 자체를 '이상적인 신념'으로 둔갑시킵니다. 카타르시스의 폭풍이 지난 후에 밀려오는 황량한 공허함은, 비판의 이유가 '신앙심 또는 애정과 관심'이었다고 말하는 '자기-정당화'로 채워집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신앙은, 자신의 신념만을 숭배하는 "이데올로기 신앙"일 뿐입니다. 전례와 계명 준수에서는 비신자와 신자들이 현저하게 차

이를 보이지만, 사랑과 자비의 실천, 특실과 이해타산, 희생과 이타적인 마음에서는 비신자와 신자들의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애초에 신념과 신앙 사이에 경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과정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지만, 사랑 안에서의 믿음은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가 사랑의 위대한 창조가 됩니다. "우리가 청한 것을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가타리나 성녀의 「대화집」 132). 하느님의 자비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부재(不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더욱 신뢰하며 인내하기를 배우도록 당신의 응답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5, 8 참조).

성인들이나 영성가들의 비판의 원천은 하느님 사랑과 분리된 개인의 신념도 아니고 감정적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자비와 사랑의 복음이 원천이었기에 후대에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교회의 죄악 안에서, 하느님과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시선을 회복하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작은 실천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희망이 없다고만 외치는 사람입니다. 희생 없는 비판은 죽음 없는 부활과 같습니다. 좌절과 회의, 비판과 비난이 아닌 '하느님 사랑에 대한 절대적 믿음' 속에서만이 우리 삶의 죄와 악, 모순된 제도와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